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유해미 부연구위원
김문정 연구원

공동육아 활성화는 지역 내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 강화와 육아지원 다각화의 일환으로 모색되어 왔다.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는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심이 보다 고조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이용·운영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부모 참여를 핵심 원리로 하여, 특히 교사 전문성, 보육·교육 프로그램, 급·간식 부문의 만족도가 높고, 보육 시간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관별로 공동육아 철학과 운영 원리가 상이하여 그 취지가 의문시될 수 있고, 영구 터전 마련 등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역내 유휴 공공기관 등의 발굴을 통한 설치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구 마련, 조합원 교육체계 구축, 지역협의체 구성 등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부모들의 보육 수요는 매우 다양하나, 정부의 육아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부모를 위주로 추진되어 육아지원 다각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공동육아 활성화는 기존의 기관보육과는 다른 육아를 추구하는 부모들의 욕구에 주목하여 이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색되어왔다. 공동육아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하여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참여와 아동중심성이 핵심 원리로서 강조되는데,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는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는 애초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중심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모들을 중심으로 모색된 사회적 육

* 이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도 기본연구보고서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유해미·김문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아의 한 방식이었으나, 이후 기존 보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여 2004년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제도화되었다.[1]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기관수로 보아 전체 어린이집의 0.3%에 불과하나, 이외 기관 유형들에 비해 2005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또한 지난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은 보다 고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의 이용 동기와 운영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의 수요와 운영 원리를 규명하고, 운영 시 애로사항 및 요구를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 현황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2],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은 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출자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증가 추이와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치 현황

2012년 12월 말 현재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총 113개소이고, 아동수는 2,91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0.2%를 차지한다. 이는 2005년(933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보육 아동수가 2005년 989,000명에서 2012년 1,487,361명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그 증가폭

〈표 1〉 어린이집 설치 현황(2005~2012)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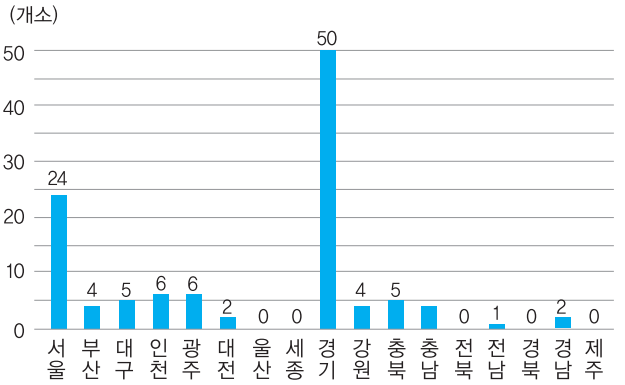
연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2005	1,473	1,495	13,748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3,930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4,083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14,275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14,368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14,677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15,004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15,309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각년도 12.31 기준).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하면,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됨.
2)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p. 11.

이 큰 것이다.

또한 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수는 25.8명으로 가정어린이집 다음으로 작고,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도 4.78명으로 가정어린이집 다음으로 작다. 기관 규모는 전체 어린이집은 20명 이하 기관이 54.5%, 21~39인 기관이 15.7%를 차지하나,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각각 45.1%, 38.9%로 나타나며, 50명 이상 규모는 약 4.5%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각각 41%와 42%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 50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지역에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울산, 전북, 경북, 제주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2012.12.31 기준).

[그림 1] 17개 시·도별 부모협동 어린이집 분포(2012)

나.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3] 소속 여부별 설치 현황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크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공공교) 소속 기관과 이외 기관(이하 공공교 소속 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교 소속 기관은 2013년 현재 63개소로 보고된다. 2005년에서 2012년 전체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기관수와 공공교 소속 기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공교 소속 기관의 경우 2005년 60개소에서 2012년 63개소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경우는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육 아동수도 공공교 소속 기관은 2005년 1,422명에서 2013년 1,673명으로 증가한 데 불과한 반면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은 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역별로는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경우도 경기와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 규모별로는 공공교 소속 기관의 경우는 21~39명 규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은 양극화 경향을 보여 20명 이하가 가장 많고, 50명 이상 규모는 모두 공공교 소속 외 기관으로 나타난다.

3)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계층·지역·성(性)·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누구나 바람직한 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음.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육아제도의 연구와 개발, 공동육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각종 연구사업,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사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육아 교육 이념의 확산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자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11).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지침서).

3. 부모협동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애로사항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이용·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의 이용 부모 총 867명(총 56개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가.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이용 동기 및 특성

부모협동 어린이집 주된 이용 동기는 보육·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가 4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동육아 방식으로 키우려고 18.9%,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12.6%,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서 7.7% 순으로 나타난다. 공공교 소속 기관들은 보육·교육 내용을 보다 중요시하며, 공공교 소속 외 기관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보인다(표 2 참조). 이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대한 선택은 주로 기존 기관보육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며, 여기에는 보육·교육 내용은 물론 교사, 급·간식 등 다양한 차원이 포괄됨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타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기관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31.7%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신뢰할 수 없어서 22.8%, 어린이집 교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8.6%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타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5%를 차

〈표 2〉 부모협동 어린이집 이용 동기

단위: %(명)

구분	전체	맞벌이 여부		공공교 소속 여부	
		맞벌이	비맞벌이	공공교	비공공교
보육·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47.3	46.8	47.9	53.7	37.4
공동육아 방식으로 키우려고	18.9	20.0	17.5	20.7	16.2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12.6	12.9	12.1	7.4	20.6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서	7.7	7.5	8.0	7.8	7.6
타유형 어린이집을 믿을 수 없어서	6.6	6.1	7.2	5.7	7.9
시설 환경이 좋아서	3.6	3.5	3.6	2.8	4.7
부모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2.0	1.5	2.6	0.8	3.8
부모들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0.8	0.6	1.0	0.8	0.9
기타	0.6	1.0	-	0.4	0.9
계(수)	100.0(867)	100.0(479)	100.0(388)	100.0(527)	100.0(340)
$\chi^2(df)$		7.248(8)		na	

주: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4) 조사 응답자는 여성이 85.4%, 30대가 75.8%로 주를 이루며, 4년대 졸 61.2%, 대학원 이상 21.9%, 월평균가구소득은 약 461만원으로, 학력과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속 기관 부모가 527명(32개소)로 전체의 60.8%를 차지함.

지하는데, 이전 기관의 유형은 가정어린이집 40%, 민간어린이집 36%로 나타났다.

한편 이전 기관 대비 현재 기관의 특징으로는 부모 참여 많음 35.8%,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 23.6%, 기관 적응도 20.1%, 특별활동 없음 5.6% 등이 지적되므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의 주된 특징은 부모 참여와 부모-교사간의 원활한 소통이며, 아동들의 기관 적응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2) 이용 시간

평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7시간 초과~8시간 이하가 30.5%로 가장 많고 평균 8시간 12분으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해당 시간인 평균 7시간 34분 보다 약 40분 가량 길게 나타났다.[5] 또한 맞벌이 여부와 공공교 소속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구는 약 8시간 42분으로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길고, 공공교 소속 기관은 약 8시간 36분으로 공공교 소속 외 기관에 비해 이용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공공교 소속 기관은 6시간 이하로 이용하는 비율이 25.8%에 달하여 해당 비율이 3%에 불과한 공공교 소속 기관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표 3 참조).

또한 평일 기준으로 오전 8시 이전 등원이 26.7%, 오후 6시 이후 하원이 8.4%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등원 시각은 빠르고, 하원 시각은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6] 또한 맞벌이 가구와 공공교 소속 기관의 경우 등원 시각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하원 시각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다(표 4, 표 5 참조).

〈표 3〉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5시간 이하	5시간 초과~6시간 이하	6시간 초과~7시간 이하	7시간 초과~8시간 이하	8시간 초과~9시간 이하	9시간 초과~10시간 이하	11시간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t*
전체	3.8	8.1	18.6	30.5	18.8	13.3	6.8	100.0(865)	8.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	4.8	12.1	25.5	22.1	21.9	11.5	100.0(479)	8.72(1.45)	12.474***
비맞벌이	6.0	12.2	26.7	36.8	14.8	2.6	1.0	100.0(386)	7.54(1.20)	
공공교 소속 여부										
공공교	0.9	2.1	14.2	36.2	22.4	16.1	8.0	100.0(527)	8.57(1.25)	8.887***
비공공교	8.3	17.5	25.4	21.6	13.3	8.9	5.0	100.0(338)	7.61(1.58)	

*** $p < .001$

5)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6)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평일 등원시각은 오전 8~9시가 5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시 이후가 40.0%로 나타나며, 평일 하원 시각은 오후 4~5시가 30.0%, 오후 3~4시 27.5%, 오후 5~6시 20.5% 순으로 나타남(자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4〉 평일 어린이집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오전 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오전 9시 이후	계(수)
전체	4.4	22.3	52.5	20.8	100.0(86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	32.4	43.2	16.9	100.0(479)
비맞벌이	0.5	9.8	64.0	25.6	100.0(386)
공공교 소속 여부					
공공교	5.9	20.5	52.4	21.3	100.0(527)
비공공교	2.1	25.1	52.7	20.1	100.0(338)

〈표 5〉 평일 어린이집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4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시 이후	계(수)
전체	7.6	15.8	35.4	32.7	8.4	100.0(86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0	10.2	30.3	42.0	13.6	100.0(479)
비맞벌이	12.2	22.8	41.7	21.2	2.1	100.0(386)
공공교 소속 여부						
공공교	0.6	6.5	40.8	42.7	9.5	100.0(527)
비공공교	18.6	30.5	26.9	17.2	6.8	100.0(338)

이러한 결과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특히 공공교 소속 기관의 경우는 이외 유형의 어린이집들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에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관에 따라 이용 시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육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이용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하여 우선 어린이집 시설 환경관련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 관리 특히 급간식 부문은 5점 만점에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위생, 유아교사 비율, 안전 부문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급·간식과 위생 부문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보인다.[7] 한편 기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 실내 환경과 교구교재 부문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안전과 환경 부문 전반에서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6 참조).

7)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표 6〉 이용기관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환경 관련 항목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급-간식	위생	아동 -교사 비율	안전	실내 환경	실외 환경	교구 교재	주변 환경	사례수
전체	4.56	4.24	4.20	4.07	3.91	3.88	3.85	3.78	867
기관 규모									
20인 이하	4.58	4.26	4.29[a]	4.15	3.89[a]	4.00	3.80	4.12[a]	236
21~50인 이하	4.58	4.23	4.22	4.00	3.85[a]	3.78	3.84	3.62[bc]	494
51~100인 이하	4.37[a]	4.27	3.92[b]	4.16	4.26[b]	4.01	4.09[a]	3.86[ac]	104
100인 초과	4.64[b]	4.12	4.27[a]	4.12	3.91[a]	4.15	3.64[b]	3.42[b]	33
F	4.133**	0.470	6.368***	2.880*	7.447***	4.959**	4.038**	17.820***	
공공교 소속 여부									
공공교	4.59	4.17	4.23	3.96	3.75	3.78	3.74	3.68	527
비공공교	4.50	4.35	4.16	4.23	4.17	4.03	4.02	3.93	340
t	2.166*	-3.579***	1.205	-5.046***	-7.820***	-3.824***	-4.954***	-3.913***	

주: 각 항목에 대해 '매우불만족' 1점~ '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보육 시간 등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 시간, 보육·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전문성, 교사와의 소통, 일과 운영 부문에서 4.0점 이상(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7 참조). 반면에 보육료와 출자금 수준 등 비용 관련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이는 공공교 소속 기관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한편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교사, 교육 내용, 비용, 부모 참여 부문과 동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 걸쳐 부모협동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표 7〉 이용기관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련 항목별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운영 비율				
	이사회	교사-부모 정기모임	정기총회	신입조합원 (부모)교육	사례수
전체	95.3	91.0	97.0	95.2	867
기관 규모					
20인 이하	88.6	89.0	92.8	90.3	236
21~50인 이하	97.2	100.0	98.2	96.2	494
51~100인 이하	100.0	50.0	100.0	100.0	104
100인 초과	100.0	100.0	100.0	100.0	33
$\chi^2(df)$	na	266.846(3)***	na	20.342(3)***	
공공교 소속 여부					
공공교	100.0	100.0	100.0	100.0	527
비공공교	87.9	77.1	92.4	87.6	340
$\chi^2(df)$	66.704(1)***	132.852(1)***	41.546(1)***	68.414(1)***	

주: 각 항목에 대해 '매우불만족' 1점~ '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운영 현황 및 중요도 인식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 총회, 이사회, 부모-교사 정기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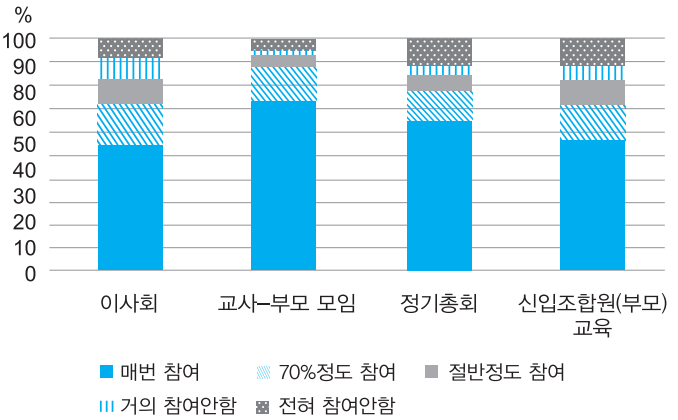
신입조합원 교육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구의 운영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정기 총회가 97%로 가장 높고, 교사-부모 정기모임은 9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부모 정기모임을 제외하면 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미운영 비율이 높고, 공공교 소속 기관은 모든 항목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공공교 소속 외 기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관 규모가 작은 경우는 해당 운영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표 8 참조).

〈표 8〉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기구별 운영 여부

단위: %, 명

구분	운영 비율				
	이사회	교사-부모 정기모임	정기총회	신입조합원 (부모)교육	사례수
전체	95.3	91.0	97.0	95.2	867
기관 규모					
20인 이하	88.6	89.0	92.8	90.3	236
21~50인 이하	97.2	100.0	98.2	96.2	494
51~100인 이하	100.0	50.0	100.0	100.0	104
100인 초과	100.0	100.0	100.0	100.0	33
$\chi^2(df)$	na	266.846(3)***	na	20.342(3)***	
공공교 소속 여부					
공공교	100.0	100.0	100.0	100.0	527
비공공교	87.9	77.1	92.4	87.6	340
$\chi^2(df)$	66.704(1)***	132.852(1)***	41.546(1)***	68.414(1)***	

주: 비율은 응답 기관이 각 운영 기구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카이검정은 각 운영 기구별 응답 기관의 운영 여부(운영함/운영안함)와 독립변인간의 교차분석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임.
na는 빈도 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 $p < .001$



[그림 2] 운영 기구별 부모참여 정도

한편 각 기구별 해당자에 한하여 참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번 참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부모-교사 정기 모임의 해당 비율이 7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기 총회, 신입조합원 교육, 이사회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또한 기관 운영 사항별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교사 전문성과 부모참여, 재정 안정 부문이 약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육아 철학 공유, 교육 내용, 교사 충원, 영구 터전, 보육 비용, 운영진 역할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이외에도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견지해야 할 사항을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동육아 철학 공유 38.2%, 교사-부모 소통 20.1% 순으로 나타난다.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경우는 교사 부문 즉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부모 소통의

〈표 9〉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운영 사항별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교사 전문성	부모 참여	재정 안정	공동육아 철학공유	교육 내용	교사 충원	영구 터전	보육 비용	운영진 역할	리더십 육성	원아 충원	사례수
전체	4.64	4.61	4.59	4.55	4.50	4.48	4.36	4.35	4.28	4.25	4.23	867
공공교 소속 여부												
공공교	4.62	4.68	4.62	4.55	4.47	4.50	4.30	4.33	4.32	4.28	4.34	527
비공공교	4.67	4.50	4.55	4.54	4.54	4.45	4.44	4.38	4.21	4.20	4.07	340
t	-1.413	4.646***	1.767	0.406	-1.554	1.165	-2.990**	-1.011	2.668**	1.621	5.357***	

주: 각 항목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매우 중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공교 소속 기관에 비해 교사들의 권한과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 애로사항 및 요구

이용 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운영 재원 부족이 4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 지침 미비 11.4%, 신입 조합원 교육 미흡과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이 공히 11.3%로 조사되었다.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경우는 운영 지침이나 신입 조합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표 10 참조).

또한 현재 어린이집 운영상 해결 과제로는 영구 터전의 마련과 조합원간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 공유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된다. 이외에도 출자금, 보육료 등 과다 비용 해소와 부모 참여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4. 정책 제언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기존 기관보육의 대안으로서, 보육·교육 프로그램, 교사와의 소통, 급간식과 위생 등의 부문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부모 참여에 따른 부모 역량의 강화는 지역내 돌봄공동체 형성 등 긍

〈표 10〉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명)

구 분	운영 재원 부족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관련 지침 미비	신입 조합원 교육 미흡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	부모들간 운영상 잦은 충돌	교사 재교육 체계 미비	기타	계(수)
전체	48.0	11.4	11.3	11.3	5.9	4.3	7.8	100.0(717)
공공교 소속여부								
공공교	45.0	9.7	9.1	16.3	6.6	4.6	8.6	100.0(453)
비공공교	53.0	14.4	15.2	2.7	4.5	3.8	6.4	100.0(264)
$\chi^2(df)$				50.061(7)***				

*** $p < .001$

〈표 11〉 어린이집 운영상 시급한 해결 과제(1, 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종합
영구 터전(어린이집 인프라) 마련	23.3	31.9
조합원간 공동육아 이념과 철학 공유	20.1	36.8
출자금, 보육료 등 비용 과다 해소	15.2	27.6
이사회 참여 등 부모참여 의식 고취 및 실천 강화	8.0	19.7
조합원 충원	7.8	15.8
보육·교육활동의 수준 향상	6.6	14.5
교사 전문성 강화	6.1	14.0
의사결정 효율성 강화: 이사회 등 운영관련 회의 간소화	5.6	15.5
보조인력 보강	4.1	11.0
교사 충원	2.6	4.9
기타	0.6	1.7
계(수)	100.0(821)	

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특히 보육 시간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관별 공동육아에 대한 철학과 운영상 상이성이 두드러지고,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공동육아에의 욕구를 지닌 부모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의하면, 기관에 따라 공동육아의 철학과 운영방식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공동육아의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하면서 해당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공공교 소속 외 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향후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보다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와 어린이집 운영 지침인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는 각각 협동조합 일반과 어린이집 일반에 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사)공공교가 제작한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 지침서'는 공공교 소속 기관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모든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침의 개발은 공동육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기존에 관련 역할을 담당해온 민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며, 기관별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포괄한다.

나. 설치 지원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그 운영 원리상 자연친화적인 보육 환경이 중요시되나, 도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한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어린이집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로 인해 영구 터전의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지적된 바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 및 공동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므로(동법 제10조, 11조), 지역내 유휴 공공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무상 임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 때 지원대상의 선정은 앞서 제시한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근거하고, 출자 최소 요건, 부모협동 어린이집 경력 교사 인원, 협동조합법인 설립 최소 시간 등의 요건이 고려될 수 있다.

다. 상담 및 컨설팅 지원 기구 마련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각종 상담 및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3년 4월부터 협동조합의 설립 상담에서부터 경영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협동조합 중간지원 기관'을 전국 7개 권역에 설치 운영 중이나,[8] 동 서비스는 협동조합 운영에 한하며, (사)공공교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 회원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별도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원은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므로 기존에 관련 기능을 담당해 온 민간단체를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동 기관은 상담 및 컨설팅 이외에도 운영 사례집 발간과, 다음에서 다룰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지역에서 관련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취한다.

라. 조합원 교육체계 구축

협동조합형 공동육아가 기존 보육의 대안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즉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단지 부모 참여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들이 공동육아 철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공공교 소속 기관의 경우는 (사)공공교에 의해 부모와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상담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속 회원에 한하므로 모든 부모협동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공동육아에 대한 기본적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 4.4). 협동조합에 대한 A부터 Z까지,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요.

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 지역협의체 구성

앞서 제기한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지원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부모협동 어린이집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동육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때 협의체의 구성은 단지 부모와 교사 이외에도 지역내 보육정보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관련 기관들을 포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다.